

## 네팔의 눈물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오늘 아침 묵상 말씀입니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12:20 (새번역)

**“정의가 이길 때까지.”** 오늘 아침 마주한 이 말씀 앞에서 쉽게 다음 구절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8월 26일, 네팔-티베트 국경 히말라야에서 거대한 얼음과 암석이 무너져 내리고, 물과 토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대규모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현장에 계셨던 한국인들의 연락 두절 소식은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번 참사를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해 빠르게 녹아내리고 불안정해지는 히말라야의 빙하와 생태계의 문제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직접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팔의 눈물을 바라보며 저는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문제는 기후위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 이해에도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과 창조세계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으며, 인간에게 그 창조세계를 경작하고 지키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복음을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아 죽은 후 천국에 가는 것’**으로 지나치게 축소시켰습니다. 물론 개인의 죄와 영혼의 구원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인간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은 피조물 전체가 탄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역시 인간이 지구를 버리고 떠나는 모습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곧 창조세계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와 생태계의 파괴를 외면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복음 자체에 대한 무관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해봅니다.

첫째, ‘죽어서 천국에 가는 구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구원’으로 우리의 복음 이해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영혼의 미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방식, 이웃을 대하는 방식,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식,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달라져야 합니다. 개인의 죄에 대한 회개가 이웃과 사회, 그리고 창조세계를 향한 회개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땅을 착취하는 농업에서 ‘땅을 살리는 농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업은 단순히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산업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토양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자연의 순환을 존중하는 농업은 단순한 환경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적 신앙의 실천입니다.

셋째, 다음 세대에게 경쟁보다 공생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남보다 앞서는 법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디

에서 오고, 가난한 이웃의 고통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살아갈 지구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교육은 단순한 환경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사람을 길러내는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네팔의 눈물이 우리의 믿음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팔의 참사를 보며 “안타깝다. 기도해야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행동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상한 사람들과 상한 창조세계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한 사회보다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받는다는 점에서 정의의 문제이며, 동시에 신앙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네팔에서 무너져 내린 거대한 빙하와 산사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믿는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인가?”**

2026년 8월 이삭 공동체에서 김기대 류소현 드림